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연내 1~2회 금리인하가 적절 주간 신규실업급여는 전주비 증가
 - 미국 트럼프, 퇴직연금 시장에 암호화폐 등 개방.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개최 합의
 - 미국 상무장관, 트럼프 임기 중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무관세 적용
 - 영란은행, 금리 0.25%p 인하. 경기둔화 가능성 및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고려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상호관세 공식 발효(7일 현지시간), 9월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반도체 등 기술주는 강세
유로 Stoxx600지수는 러-우 휴전 기대 등으로 0.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9월 금리인하 전망 등을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0년물 입찰에서의 저조한 수요 등으로 상승
독일은 영란은행의 금리인하 여파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1.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3.6원, 0.17% 상승). 한국 CDS 강보합

		8/7일	8/6일	전일대비			8/7일	8/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40.0	6,345.1	-0.08%	국채 금리 10y	미국	4.25%	4.23%	+2bp
	유럽	546.05	541.07	+0.92%		독일	2.63%	2.65%	-2bp
	중국	3,639.7	3,634.0	+0.16%		영국	4.55%	4.53%	+2bp
	일본	41,059	40,795	+0.65%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3,227.7	3,198.1	+0.92%		중국	45bp	44bp	+1bp
환율	달러지수	98.07	98.18	-0.10%	위험 지표	EMBI+	-	355	-
	유로화	1.1666	1.1660	+0.05%		VIX	16.57	16.77	-1.19%
	엔화	147.14	147.37	+0.16%		WTI유	63.88	64.35	-0.73%
	위안화	7.1814	7.1824	+0.01%	원자재	구리	439.9	441.3	-0.33%
	원화	1,381.2	1,389.5	+0.60%		금	3,396.4	3,369.3	+0.8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주요 인사, 연내 1~2회 금리인하가 적절. 주간 신규실업급여는 전주비 증가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노동시장 관련 위험이 증가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금리인하를 약속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 다만 현 상황에서는 연내 1회의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첨언.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라는 의견에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부연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기 위해 향후 수개월 동안 금리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추정. 한편,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연내 2회의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 피력
-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명. 내년 1/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인 미란 위원장은 그 동안 계속해서 최근 연준의 정책 결정을 비판했으며, 정책 결정의 실패 원인은 '집단사고(groupthinking)'에 있다고 주장. 블룸버그는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월러 이사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
- 한편, 8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2.6만건으로 전주(21.8만건) 및 예상치(22.1만건) 대비 높은 수준. 이번 결과는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 2/4분기 노동생산성은 전기비 2.4% 상승하여 1/4분기(-1.8%) 대비 양호한 결과 제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퇴직연금 시장에 암호화폐 등 개방.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개최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퇴직연금제도인 401k에 가상화폐, 부동산, 사모펀드 등의 대체투자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시장에서는 투자대상 확대의 장점이 있으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
- 러시아 크렘린궁은 수일 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데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준비에 착수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WTI 등 주요 유가는 전일비 하락(WTI: 63.88달러, -0.73%)

■ 미국 상무장관, 트럼프 임기 중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무관세 적용

-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에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발언. 이에 따라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은 관세 제외 대상에 포함될 전망

■ 영란은행, 금리 0.25%p 인하. 경기둔화 가능성 및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고려

-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0.25%p 낮춘 4.00%로 제시. 9명의 통화위원 가운데 5명이 찬성했고, 4명은 동결을 지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연율)이 3.6%로 목표(2.0%)를 상회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가능성 및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 우려 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독일 6월 산업생산, 약 5년 만체 최저. 미국의 관세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원인

- 6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1.9% 줄어 '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감소폭은 약 1년 만에 최대.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중국 7월 수출, 예상치 상회. 미국발 관세 리스크 회피를 위한 선수출 등에 기인

- 7월 수출은 3217억달러로 전년비 7.2% 늘어 예상치(5.6%) 대비 높은 수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아세안(ASEAN) 지역 등으로의 선수출 확대 등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일본 내각부,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소비 둔화 가능성 등을 반영

-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제시하여 이전(1.2%)에 비해 큰 폭 하향. 이번 결과는 미국 트럼프 관세로 인한 국내외 경기의 부진 가능성,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 예상 등을 반영. 한편, 금년 엔/달러 환율의 평균은 달러당 145.7엔(이전 153.6엔)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엔화 강세를 예상한다는 의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8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세인트루이스 연은 무살렘 총재 발언
- 중국 7월 신규대출, 캐나다 7월 실업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관세정책,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난제 극복은 여전한 과제 - Reuters

(Trump may look like he's winning the trade war, but hurdles remain)

-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의도 관철, 對중국 무역적자 해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리고 2.5% 수준이었던 실효 관세율은 100년래 최고치 수준인 20%까지 인상될 전망. 다만, 예상과 달리 상대국의 무역 보복은 제한적이나, 인플레이션 및 경기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또한 EU와 일본, 한국 등과 투자구매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는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 이행여부는 불확실. EU의 경우 역내 회원국과 기업에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 아울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일방적 상호관세 부과는 법률적 타당성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소지

■ 미국 트럼프의 무역전쟁, 동맹국 무임승차 문제 해결은 어려울 가능성 - 블룸버그

(A trade war isn't how you deal with free rider)

- 트럼프 대통령은 고관세와 비대칭적 무역협정으로 세계경제 질서와 미국의 리더십 구조를 재편 중이며, 이는 전후 자유세계 동맹을 위해 미국이 많은 부담을 떠안던 시대가 끝나고, 적극적으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리더십을 유지했지만, 관대함은 점차 축소. 트럼프 정책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이자 기존 모델에 대한 근본적 거부로도 평가
-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과 미국경제 재정비를 통해 민주주의 진영과 미국의 국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도 존재하지만, 과도한 관세는 미국경제를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 아울러 불균형한 협정은 동맹국의 반발과 정치적 불안도 초래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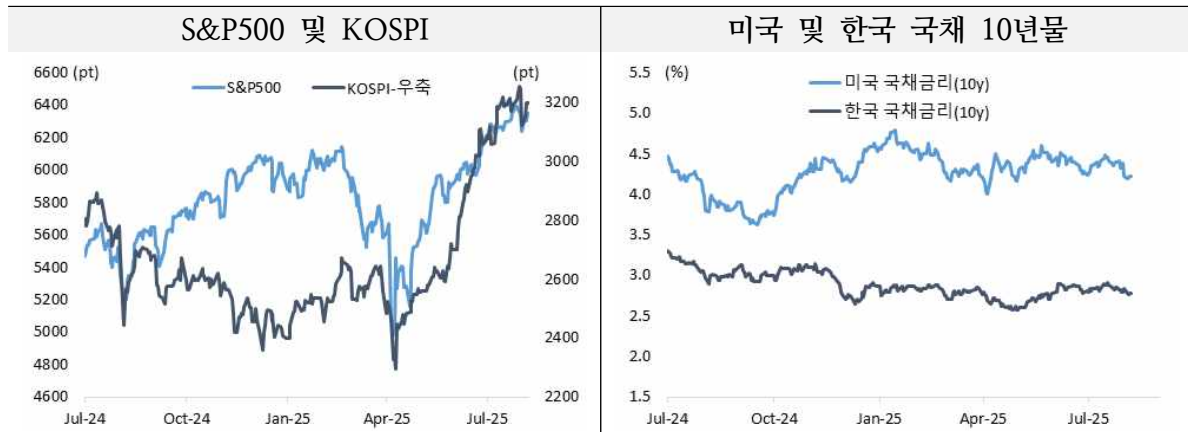
■ 국제 유가, 장기 측면의 상승 기대 유효. 다만 단기 하락은 불가피 예상 - 블룸버그

(The Bullish Case for Oil Is Real — But Far, Far A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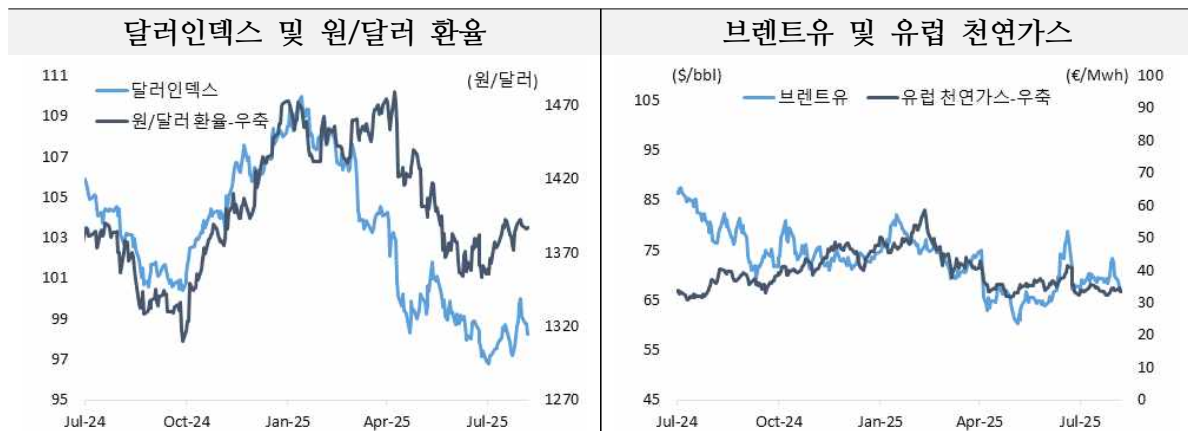
- 국제 유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음의 요인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 첫째, 경기 둔화 불구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은 20년 장기 평균(110만배럴, 일) 유지. 둘째, 현재 低유가 상황은 투자 위축과 비OPEC+ 산유국의 생산량 감소를 유도. 허리케인, 동절기 폭한 등의 자연적 현상과 산유국 전쟁 발발 가능성 등 유가 상승의 잠재적 요인 상존
- 하지만, 트럼프의 고유가 반대 표명, 산유국의 투자 및 생산량 확대 억제 및 여유 생산 능력 소진을 위한 저유가 장기화 필요성, 중국 경기 둔화, 전기차 확산 등으로 단기적 측면에서 유가 하방 압력은 지속될 전망

- **유럽 기업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 무역 전쟁유로화 강세 등이 원인 - Financial Times**
(European earnings lag behind US as trade war throttles market revival)
 - 올해 상반기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미국 예외주의 쇠퇴, 유럽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 등의 재정 부양책 기대로 유로존 주가가 장기 상승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하지만, 4월 해방의 날 이후 미국 S&P500지수는 빅테크 실적 호조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반면 StoxxEurope600지수는 3월 초 고점을 하회
 - 아울러 2/4분기 미국 S&P500 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연율 9%로 예상되지만, 유럽의 StoxxEurope600 기업의 이익은 정체될 것으로 추정. 이는 트럼프 관세로 유럽 자동차 산업 전망 악화, 대형 첨단 기술주 부재,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업체 타격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
- **미국 트럼프 무역정책의 성패, 인플레이션 현실화 여부가 관건 - WSJ**
(Trump's Biggest Economic Threat Is Inflation)
- **미국의 무역전쟁 승리 선언, 다수의 위험 요인 고려 시 시기상조 - 블룸버그**
(US Would Be Wise Not to Count Its Winnings on Trade Just Yet)
- **미국 빅테크 중심의 집중 투자,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으나 위험도 내재 - 블룸버그**
(The Winning Stocks Always Rule — But Never Quite Like This)
- **EU의 환경규제 완화 추진, 역내 기업의 장기 경쟁력 악화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Rowback on EU green rules will harm companies and investors)
- **벤처캐피탈 시장, 부활의 기회 속 투자자 경계감과 AI 리스크 공존 - Financial Times**
(The venture capital money machine is spinning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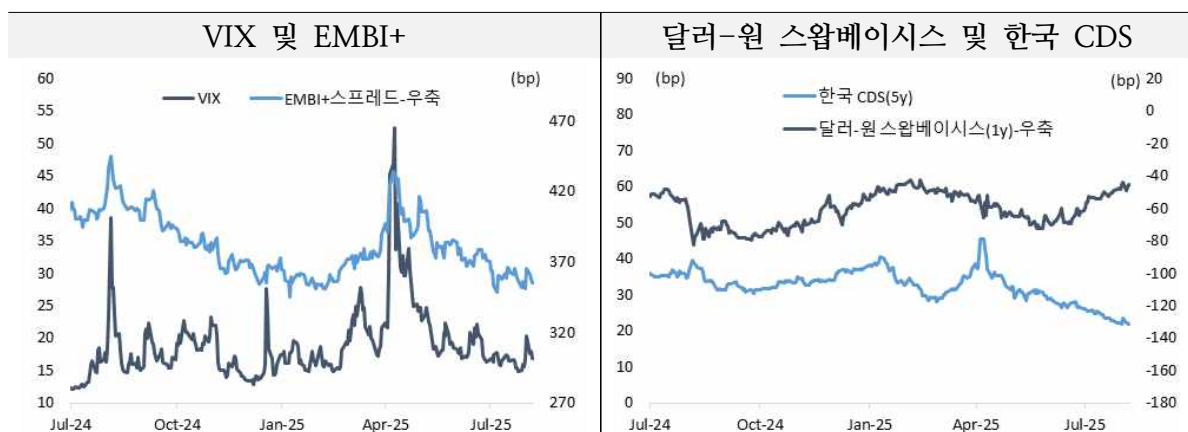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